



카자흐스탄

외국인 직접투자 호조

외국인투자 호조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과 2000년에 전년 대비 각 50.2% 및 48.6% 증가한 데 이어 2001년 1~9월 중에도 32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3년부터 2001년 9월말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은 총 15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석유·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다, 외국인투자법(1994년) 및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1997년) 제정 등 법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1년 1~9월중 외국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약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51%를 차지하여 1997년 말의 1.9%에서 크게 높아졌다.

석유·가스산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 집중

산업별로는 석유·가스산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 1~9월중 석유·가스산업을 포함한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3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46.5%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직접투자가 25억 달러에 달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카자흐스탄의 광업에 대한 투자전망을 여전히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한국 등 3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56.1%를 점유하고 있으나, 석유·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표 1〉 주요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산업별	1993~98	1999	2000	2001. 1~9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석유·가스	2,928	1,373	1,958	2,472	77.1	8,731	55.5
기타 광업	2,366	64	110	29	0.9	2,569	16.3
식품가공	288	79	41	48	1.5	456	2.9
발전(수력·화력)	369	23	42	19	0.6	453	2.9
운송·통신	51	20	95	100	3.1	266	1.7
기 타	1,927	1,559	506	537	16.8	4,529	28.7
합 계	7,929	1,852	2,752	3,205	100.0	15,738	100.0

주 : 투자금액 기준임

자료 : Investor's Guide 2002, Kazinvest

2001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는 미국(31억 1,900만 달러), 영국(10억 3,300만 달러), 이탈리아(8억 3,800만 달러), 캐나다(5억 7,500만 달러)의 순으로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은 1998년 말 대비 미국이 5.4% 포인트, 이탈리아 5.1% 포인트, 네덜란드 2.9% 포인트, 캐나다 2.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1999년부터 2001년 9월까지의 직접

투자 금액이 1억 6,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2.0%에 그쳐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하여, 1998년 말 대비 8.2%의 가장 높은 비중 감소율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 대조를 보였다.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외국인기업 진출현황

1993년 이후 미국의 ChevronTexaco와 ExxonMobil, 이탈리아의 ENI-Agip, 영국의 BG와 Royal Dutch/Shell(네덜란드 합작), 캐나다의 Hurricane, 러시아

〈표 2〉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3~98		1999	2000	2001.1~9		1999~2001.9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98.말 대비
미 국	2,304	29.1	906	994	1,219	38.0	3,119	40.0	5,423	34.5	▲5.4
한 국	1,466	18.5	29	57	71	2.2	157	2.0	1,623	10.3	▼8.2
영 국	1,060	13.4	160	464	409	12.8	1,033	13.2	2,093	13.3	▼0.1
중 국	412	5.2	50	87	201	6.3	338	4.3	750	4.8	▼0.4
캐 나 다	237	3.0	9	145	421	13.1	575	7.4	812	5.2	▲2.2
일 본	281	3.5	4	18	20	0.6	42	0.5	323	2.0	▼1.5
네덜란드	34	0.4	250	110	133	4.2	493	6.3	527	3.3	▲2.9
이탈리아	38	0.5	126	351	361	11.3	838	10.7	876	5.6	▲5.1
기 타	2,097	26.4	318	526	370	11.5	1,214	15.6	3,311	21.0	▼5.4
합 계	7,929	100.0	1,852	2,752	3,205	100.0	7,809	100.0	15,738	100.0	

주 : 투자금액 기준임

자료 : Investor's Guide 2002, Kazinvest

〈표 3〉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주요 외국인기업 진출 현황

기업체, 컨소시엄 등	외국인기업	사업 내용	매장량	투자액
Aktobe	China National Petroleum Company(CNPC) 63%, Aktobemunaigaz 37%	Aktobe 유전 개발	원유 추정매장량 10억 배럴	20년간 41억 달러
Hurricane-Kumkol	Hurricane(캐나다)	Kumkol 유전 개발, 2001년중 하루 72,000배럴 생산	확인매장량 원유 4.4억 배럴, 가스 679억 Bcf	
Kazakhoil-Telf	Kazakhoil-Telf(Kazmunaigaz 자회사) 69%, Telf AG(스위스) 31%	Vostochnaya Kokorna 유전 운영	원유 추정매장량 1,500만 배럴	1999~2000년 중 0.5억 달러
Kazgermunai	Veba Oel(독) 25%, EEG(독) 17.5%, IFC 7.5%			3억 달러
Kumkol-Lukoil	Lukoil(러)	하루 17,000배럴 생산		
Kuatamlonmunai	Amlon(영) 50%	Bektas-Konys 유전 개발		
Tenge	Anglo-Dutch(미)	Tenge 유전 개발	추정매장량 원유 5억 배럴, 가스 1Tcf	
Tengizchevroil(TCO)	ChevronTexaco(미) 50%, ExxonMobil(미) 25%	서부 Tengiz 및 Korolev 유전 운영	원유 가채매장량 60~90억 배럴	1993년부터 40년간 200억 달러
Agip Kazakhstan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Agip KCO)	ENI-Agip(이태리), BG(영), Royal Dutch/Shell(영/네덜란드), TotalFinaElf(프/벨기에), ExxonMobil(미) 각 14.29%, Phillips(미) 7.14%, Statoil(노르웨이) 4.8%	Kashagan 유전 개발	원유 추정매장량 400억 배럴	1993년부터 12년간 10억 달러
Kazakhoil-Bouygues Offshore	Bouygues(프) 50%	2001. 4. JV 조인. 항만설비, 터미널, 저장·정제설비 설치		
Caspian Pipeline Consortium (CPC)	러시아 24%, 카자흐 19%, ChevronTexaco(미) 15%, LukArco(러/미) 12.5%, Rosneft-Shell(러/영/네) 7.5%, ExxonMobil(미) 7.5%, Oman 7%, Agip 2%, BG(영) 2%	카자흐스탄 Tengiz 유전에서 러시아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까지 990마일 송유관. 2015년에는 하루 1,34백만 배럴 운송 능력. 2001.10. 운송개시		42억 달러
Karachaganak Integrated Organization (KIO)	Agip 32.5%, BG(영) 32.5%, ChevronTexaco(미) 20%, Lukoil(러) 15%	2000년 응축가스 하루 9.2만 배럴 생산, 2001년중 하루 10만 배럴 생산 추정. Atyrau 송유관 건설계획 → CPC와 연결	원유·응축가스 가채매장량 23억 배럴, 가스 가채매장량 17.6Tcf	2000년, 2001년 각각 10억 달러 투자 추정
Karachaganak 가스전 관련	CCC Saipem(그리스/이탈리아)	Karachaganak 가스전 가스 가공설비 및 CPC pipeline 연결 Project		9억 달러
유전 개발 허가	JNOC(일) 50%			30년간 39억 달러
"	ChevronTexaco(미) 65%, Nimir(사우디) 35%	North Buzachi 유전개발	추정매장량 10억 ~15억 배럴	8억 달러 이상

의 Lukoil, 중국의 CNPC 등 여러 석유·가스회사들이 카자흐스탄의 Aktobe, Kumkol, Tenge, Tengiz, Kashagan 등지의 유전 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송유관 건설 컨소시엄인 Caspian Pipeline Consortium(CPC), Karachaganak 유전의 개발·운영 회사인 Karachaganak Integrated Organization(KIO) 등에 지분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출해 있다. 석유

및 가스전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도 CPC로의 연결 등을 위한 송유관 건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유전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진출시 송유관, 도로, 환경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吳銀相】